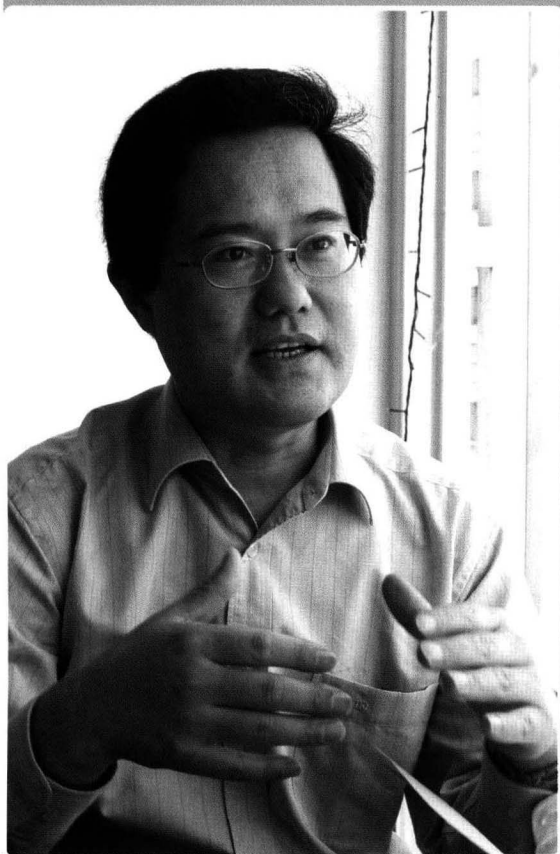


아직도 ‘서울대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위장된 학교》낸 사회학자 김덕영 씨



연말, 연초면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몸살을 앓는다. 외국에선 ‘믿거나 말거나’로 간주될 법한 수능능력 시험과 그것을 위한 국가적인 ‘배려’가 돋보이는 진풍경이 그렇고, 시험이 치러진 이후에도 끝없이 제기되는 오답 시비,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그렇다. 은밀히 행해진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도 양극화되고 있다. 대학진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판박이 교육에 길들여진 탓에 교육현실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의식’에 기초해 지적한 책이 나왔다. 사회학자 김덕영 씨의 《위장된 학교》는 한국 학교가 뒤집어쓰고 있는 위장망을 걷어내는 지적 작업의 일환이다.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가 받았던 기초교육이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을 낳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후, 교육에 대한 짙막한 글을 써오기는 했는데, 단행본으로 처음이네요. 전문서지만 대중성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은 교육현실을 누구보다 직시하는 사람이 학생과 학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칸트, 막스 베버와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원서로 접하고 싶어 유학을 갔다. 사회학, 철학, 과학이론을 두루 공부하고 독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교육에 대한 의식과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책을 낸 계기이기도 하다. 교육을 주제로 책을 쓰려니 다뤄야 할 것이 많았지만 당장의 한국 현실을 통찰하면서 외국사례와 비교하는 형식을 취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국민은 대학에도 서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막연하게는 서울대가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하버드, 독일은 하이델베르크, 일본은 도쿄라는 식의 발상이었죠. 현지에 가보니 대학서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냐고 물으면 ‘좋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반문만 돌아왔죠.”

그가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양적 세계관’이다. 우리는 ‘예쁘다’에 그치지 않고 ‘얼마만큼, 어느 정도 예쁘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것을 대조시켜서 서열화시키는 것은 자연스레 맨 위에 올려진 것만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위장된 학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의식화 작업을 시도한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어릴 적부터 미덕이라고 배워 온 집단주의입니다. 물론, 교육도 그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극단적으로 목숨까지 내놓는 행위를 통해 도덕과 윤리를 배웠습니다. 타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여긴 개인주의는 이기적인 것으로 배척해 왔어요. 하지만 국가는 개인주의자들이 이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국가의 개인, 사회의 개인이 아닌, 개인들의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단순노동을 하는 일자리에 한

국 학생들은 대단한 환영을 받는다. 시키는 대로 몇 시간이 됐든 꼼짝없이 일만 한다는 호평을 받기 때문이다. 자유스럽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강요당한 한국 학생들의 '특기'가 비로소 빛이 나는 때다. 그러면서도 정작 정식직원으로 고용되지 못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탓이다. 정상을 향하면서도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현실이 만들어낸 모순이다.

그는 책에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이런 모습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끊임없는 자극으로 학생들을 정상으로 내모는 교실은 동물의 자발적 행동분석을 위해 고안된 '스키너 상자'로, 한국민의 편협

한 세계관은 하나의 눈으로 번갈아 세상을 보는 그리스 신화 속, 그라이아아 자매이야기로 비유됐다. 선출되는 교육부장관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보완하기보다 자기 것을 '개발'하기 급급한 현실에 대해선 '교육정책은 정권과 교육부장관이 낳은 사생아'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수준 높은 사회과학적 분석보다 설득력 있다.

"독일의 모든 대학이 우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위계질서로 인해 교수임용에 논란이 일고, 재학기간에 규제가 없고 등록금이 저렴해 졸업을 보류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대중화 대학으로 변화된 이후, 소수만 참여하는 세미나식 수업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시기를 두고 대학마다 다른 방식으로 개혁중이에요.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식은 우리나라보다 우수합니다. 의식 자체가 확립돼 있지 않으니깐요."

받아쓰기에 대한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선생님은 교과서를 덮으라는 명령과 함께 번호를 매겨



가며 문제를 낸다. 밀려 쓰거나 문제를 놓치면 실력에 상관없이 낙제점을 받기 십상이다. 이것이 '한국식 받아쓰기'다. 독일에서는 독립된 문장의 의미보다 전체적인 글의 맥락과 문법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시험문제도 학생들의 난이도와 연령에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 위주로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다. 그는 "우리의 경우 대학생들조차 적정 수준 이상의 문장을 구사하지 못한다"며 "지금처럼 텔레비전 자막에 의존한다면 아이들은 물론, 전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실과 학교의 실체를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한 책은 그 수만큼 많이 묻히

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공부법을 담은 실용서를 자녀 손에 쥐어주고 있다.

"《위장된 학교》를 내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었습니다. '또 교육얘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교육이라는 진부한 주제지만 이제껏 한국교육이 지향했던 이념과 정책들을 근대성을 기준으로 담아냈습니다. 현재는 전 국민들이 교육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대적인 합리성도, 전근대적인 합리성도 없는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대안이 될 만한 해결책을 내놓은 거냐고요. 책을 써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교육부 관료라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겠지만 이론을 공부한 사회학자로서 낸 책 한 권이 의식변화의 기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가장 좋은 이론은 가장 좋은 실천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교육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대안의 하나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관료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

취재 홍이현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